

한국어 중격구조와 논항*

이영현

(조선대학교)

Young-Hern Lee. 2003. Multiple Case Structures and Arguments in Korean.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1), 89-11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analyze the second NPs of the multiple case structures in Korean into a VP specifier. Logically, it is necessary for a one-place predicate to contain only one argument. However, traditionally the so-called multiple case structure was accepted as an atomic formula. In this paper, we argue that so-called multiple subjects should be treated as a combination of a single subject and specifier with a predicate. If we adopt the VP specifier analysis instead of double subjects, first we can describe the multiple case/embedded structure as an atomic sentence. Second, we can explain the blocking of scrambling in the double subjects. Third, we also explain the deletion of second NPs and their case markers. Fourth, the interpretation vectors in Ikeya (1991, 1996) can be replaced with a VP specifier. Fifth, we can get rid of the arbitrary thematic role assignment to NPs in Jung-Gon Si (1996). Sixth, the entailment between the first NP and the second NP in the double subject case structure can be easily explained. Finally, we can formalize the double subject structure as an atomic formula by revised Davidson's notation. (Chosun University)

주제어(Key words): multiple case structure, arguments, double subject construction, VP Specifier, specifier markers, case markers

1. 서론

한국어 명사구는 격표지에 의하여 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하나의 격표지는 하나의 격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점에서 주격표지 {가/이}와 함께 쓰이는 명사구는 주어로, 그리고 {을/를}과 함께 쓰이는 명사구는 목적어로 취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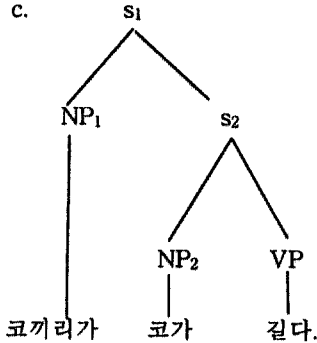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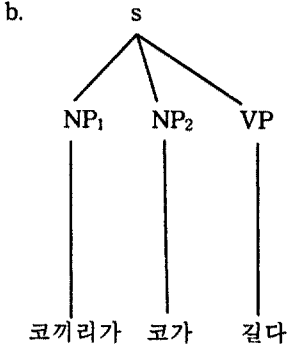
* 이 논문은 1999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그러나 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가 주어나 목적어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 명사구가 논항으로써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임의의 명사구가 1항 술어의 논항으로 쓰인다면 주어라 할 수 있으며, 두 개의 명사구가 2항 술어의 논항으로 쓰일 수 있다면 각각 주어와 목적어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가 논항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 명사구의 격표지가 항상 동일한 논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형태상으로 명사구의 격표지는 논항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이지만, 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와 논항으로서의 역할 사이에는 항상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주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가 주어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목적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한국어(이하 국어로 약칭함)의 중주어 구문에서는 하나의 핵문에 두 개의 주어를 인정함으로써 1항 술어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한다는 문제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종래 국어 격표지의 연구는 1항 술어가 2개의 논항을 갖는다는 논리적 모순과, 하나의 논항을 두개의 격표지로 나타냄으로써 격과 논항 사이의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안으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김영희(1978)의 대소주어설, 양인석(1972)의 대소관계설, 그리고 임흥빈(1972), 성광수(1974)의 주제어설 등으로, 예컨대 (1a)의 두 명사구 사이에는 대주어와 소주어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나의 핵문에 2개의 주어를 인정하는 경우이다. 둘째는 최현배(1937), 박병수(1983) 등의 포유문설 등으로 하나의 핵문을 복문으로 분석하는 경우로서 중주어 가운데 이른바 소주어(앞으로는 제 2명사구로 칭함)와 서술어를 내포문으로 간주한 경우이다.

(1) a. 코끼리가 코가 길다.



즉 대소 주어설 등에서는 (1b)에서 보는 것처럼 NP₁과 NP₂를 각각 VP의 논항으로 간주한 것이며, 포유문설 등에서는 (1c)에서 보는 것처럼 S₁에는 S₂가 매립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 격과 의미에 관한 연구는 첫째, 이른바 제 2명사가 주어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를 밝히는 것과 둘째, 제 2명사구가 주어가 아니라면 이들 명사구의 문법적 기능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주된 관심사가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국어의 중주어 가운데 제 2명사구는 주어라 아니라 지정어(specifier)임을 밝힘으로써, 1항 술어는 오직 하나의 논항만을 취할 수 있음을 보이고, 나아가서 중주어 구문은 하나의 핵문임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는데 목적을 둔다. 특히 국어의 제 2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함으로써, 국어 격표지와 의미에 관한 종래의 논의를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명사구와 논항

국어 증거구조에 대한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국어의 중주어 구문의 특성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중주어 구조의 특성은 이들 두 명사구가 논항으로 쓰일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첫째로 이른바 중주어인 명사구들이 논항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들 명사구 사이에는 뒤섞기(scrambling)가 가능해야 할 것이다. 국어의 논항은 뒤섞기 규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논항인 주어의 위치는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 (2) a.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 b. 영희를 철수가 좋아한다
- (3) a. 나무가 꽃이 피었다.
- b. *꽃이 나무가 피었다.

(2)의 철수가와 영희를은 서술어 좋아하다의 명시적 논항임으로 이들은 뒤섞기 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3)의 나무가와 꽃이를 각각 명시적인 주어라 한다면 이 또한 논항으로서 자격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뒤섞기 규칙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b)가 비문법적인 것은 이들 명사구 나무가와 꽃이를 논항으로 간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둘째로, 논항표현은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언어 보편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중주어 가운데 소주어를 생략할 수 있다는 사실은 소주어는 논항표현이 아님을 말해준다.

- (4) a. 철수가 영희를 좋아한다.
- *b. 철수가 좋아한다.
- (5) a. 산이 (높이가) 높다
- b. 자동차가 (속도가) 빠르다.
- c. 철수가 (키가) 크다

(4b)에서 보는 것처럼 명시적 논항 영희를을 생략하면 비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그러나 (5)에서 보는 것처럼 제 2명사구를 생략해도 문법적 표현이 유도된다. 따라서 중주어 구문의 제 2명사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5)의 제 2명사구는 논항표현이 아님을 의미한다.

셋째, 격표지를 수반하지 않는 명사는 명사구로 간주될 수 없으며¹⁾, 명사구가 아닌 표현은 논항표현이 될 수 없다. 형태상으로 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라 할지라도 격표지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들 요소가 명사구가 아님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들 요소는 논항표현이 될 수 없다.

1) 명사구란 [명사 + 격표지]의 구조를 갖는 경우로서 격표지를 수반하지 않는 명사는 명사구로 간주하지 않는다.

- (6) a. 철수가 귀(가) 먹었다.
- b. 철수가 손(이) 크다.
- c. 나무가 꽃(이) 피었다.
- (7) a. 철수가 귀가 먹었다.. ↔ * 철수 귀가 먹었다.
- b. 철수가 귀가 먹었다. ↔ 철수가 귀 먹었다.

예컨대 (7)에서 보는 것처럼 제 1명사구의 주격표지 {가}와 제 2명사구의 격표지 {가}가 동일한 형태라 하더라도, 이들 형태소의 생략 가능성 여부는 이들 명사구의 성격이 다를 것을 보여준다. 즉 (7a)에서 철수가의 {가}가 생략되면 비문법적이지만, (7b)에서 보는 것처럼 귀가의 {가}는 생략되더라도 문법적이다. 이러한 사실은 철수가의 {가}와 귀가의 {가}를 동일한 격표지로 간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6a)의 철수가의 문법적 기능과 귀가의 문법적 기능이 다를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목적격 표지 {을/를} 역시 목적격 표지로 쓰이는 경우와 목적격 표지 이외의 요소로 쓰이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8) a. 동네 사람들은 두 집을 건너 한집 꼴로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 동네 사람들은 두 집 건너 한집 꼴로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 b. 동네 사람들은 두 집을 건너 한집 꼴로 태극기를 게양하였다.
- ↔ *동네 사람들은 두 집을 건너 한 집 꼴로 태극기 게양하였다.
- (9) a. 철수는 자전거를 두 시간을 탔다.
- 철수는 자전거를 두 시간 탔다.
- b. 철수는 자전거를 두 시간을 탔다.
- ↔ ?* 철수는 자전거 두 시간을 탔다.

(8a)에는 목적격 표지 **집을의 {을}**과 **태극기들의 {를}**이 쓰이고 있다. 즉 (8a)의 경우, **집을은** 서술어 **건너다**의 목적어 입에도 목적격 표지 {을}을 생략할 수 있으나, (8b)에서는 **게양하다**의 목적어 **태극기들의 {를}**을 생략할 수 없다. 또한 (9)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전거들의 {를}**과 **두 시간들의 {을}**은 형태상 동일한 목적격 표지임에도 불구하고 (9a)는 문법적인데 반해서 (9b)는 비문법적이다. 따라서 (8a)의 **두 집을의 {을}**은 형태상 목적격 표지이지만 의미상 목적어를 나타내는 형태소와는 구별된다. 또한 (9a)에서도 제 1명사구 **자전거들의 {를}**과 **두 시간들의 {을}**은 서로 다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취할 수 있는 매개논항(adicity)에 따라 명제구조가 결정되는 것이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바꾸어 말하면 논항의 성격은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매개논항이 결정되지만, 국어에 있어서 격표지를 수반하는 명사구라 할지라도 이들 명사구가 항상 논항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6)의 제 2명사구에 주격표지 {가/이}가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중주어 구문으로 간주한 것과 마찬가지로 (9)의 경우 두 개의 목적격표지와 함께 쓰이는 요소를 목적어로 간주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형태상의 명사구와 논항의 성격을 동일시 한데서 기인한 과오이다.

넷째, 제 2명사구가 주어라면 다음 문장의 서술어는 동일하지 않다는 문체에 봉착한다.

- (10) a. 그 산이 높다. (1항술어)
 b. 그 산이 높이가 높다. (2항술어)
 c. 그 산이 한국 산으로는 높이가 높다. (3항술어)

(10a)의 서술어 높다는 산을 논항으로 취하는 1항 술어라고 한다면 (10b)의 높다는 산과 높이를 논항으로 취하는 2항 술어라고 해야 할 것이고, (10c)에서는 명사구 산, 한국 산, 높이를 논항으로 취하는 3항 술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0a)와 (10b)는 동일한 의미표현이라는 점에서 높다를 서로 다른 동사라고 할 수 없다. 즉 (10a)의 높다는 1항 술어로 그리고 (10b)의 높다는 2항 술어로 간주할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동일한 하나의 서술어가 1항 술어와 2항술어로 쓰일 수 없다면 (10b)의 제 2명사구는 논항 표현이 아님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 2명사구는 주어가 될 수 없다.

이렇듯 주격 표지 {가/이}는 물론이고 목적격 표지 {을/를}역시 격표지로써의 기능과 격표지 이외의 요소로 구분함으로써 종래 중격구조로 간주하였던 요소 가운데는 주어와 목적어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요소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제 2명사구가 논항표현이 아니라면 이들 제 2명사구의 문법적 범주는 무엇인가를 밝힐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지정어와 지정어 표지

일반적으로 서술어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의 외연은 서술어의 외연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술어와 논항 사이에는 함수-논항 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함수-논항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

해서 서술어의 외연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철수가 크다**의 논리식 **크다(철수)**에서는 함수-논항 관계가 불분명하다. 즉 철수가 [크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크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않는 것** 같기도 하다. 이 경우 함수-논항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서술어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서술어의 외연을 제한하는 요소들이 지정어(specifier)이다.

- (11) a. 철수가 걷는다.
- b. 철수가 빨리 걷는다.

(11)에서 논항 **철수**는 서술어 **걷다**의 외연 속에 들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철수가 걷다의 외연 속에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11b)의 의미를 완전히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11a)는 (11b)를 함의하지 못한다. 따라서 철수의 외연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서술어 **걷다**에 지정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 (12)a. 걷다 = {x | x walks}
- b. 빨리 걷다 = {x | {x walks} ∈ {X} | {walks} ⊆ X}

즉 **걷다**의 외연을 {x walks}라고 한다면, **빨리 걷다**({x walks})를 부분 집합으로 취하는 {{x walks}}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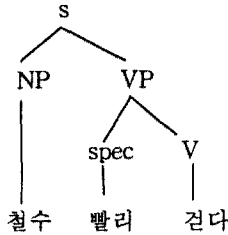
서술어의 외연을 제한하는 요소는 부사뿐만 아니라 임의의 범주표현이 될 수 있다. 핵계층 이론(X-bar theory)에서 모든 bar-범주(X')는 왼쪽에 자매절점(sister node)을 지정하는 요소를 지정어로 간주하고 있다.

- (13) a. N' → [Spec, N]
- b. V' → [Spec, V]
- .
- .
- .
- n. X' → [Spec, X]

(13)에서 지정어의 범주에 따라 (11b)의 통사구조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4) a. 철수가 빨리 걷는다.

b.



서술어를 제한하기 위한 요소를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이른바 중주어 구문에서 제 2명사구는 VP의 지정어로 간주할 수 있다. (13)에서 본 것처럼 지정어는 [X]의 범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VP의 지정어는 부사나 동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명사도 지정어가 될 수 있다. 즉 국어에서는 보통명사가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15) a. 공부 + 하다, 일 +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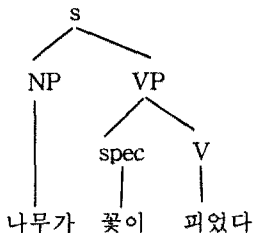
b. 떡 + 하다, 바람 + 나다, 금 + 가다, 애 + 타다, 속 + 터지다

(15a)의 행위 명사 뿐만 아니라 (15b)의 보통명사 역시 서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술어를 이루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중주어의 제 2명사구는 서술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predication)을 이룬다.

이러한 서술구조에 입각하여 (3a)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수형도로 나타낼 수 있다.

(16) a. 나무가 꽃이 피었다.

b.



(16)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는 VP의 지정어라고 할 수 있다. 제 2명사구 꽃이가 VP의 지정어라면 이른바 주격표지로 간주하였던 {가/이}는 지정어 표지(specifier mark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6n)의 제 2명사구 꽃이의 {가/이}와 (16b)의 제 2명사구 명사구 귀가, 손이 꽃이 등의 {가/이}는 (16)의 제1명사구 나무가의 {가/이}와는 다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16)의 철수가의 {가/이}는 격표지(case marker)라고 할 수 있으며, 꽃이의 {가/이}는 지정어 표지(specifier marker)라고 할 수 있다.

- (17) a. {가/이}Case Marker
 b. {가/이}Specifier Marker

그러나 이른바 중주어 구조에서 제 2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하더라도 이들 지정어 사이에는 서로 상이한 점이 있다.

- (18) a. 철수가 [눈이]spec 멀다 → 철수가 눈 멀다
 b. 산이 [높이가]spec 높다 → 산이 높다

(18a)의 눈이나 (18b)의 높이가는 모두 지정어라고 하더라도 (18a)의 눈이의 지정어 표지 {가/이}는 생략할 수 있으나, 지정어 전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해서 (18b)의 높이가는 지정어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정어 표지의 생략과 지정어의 생략은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정어표지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지정어 표지와 함께 쓰이는 명사가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예컨대 (18b)에서 [멀다]라는 속성은 철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다. 철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눈이 멀었다], [귀가 먹었다]등의 속성이다. 바꾸어 말하면 철수가 가질 수 있는 속성을 구체화하기 위한 부가적 요소가 필요하며 이러한 요소가 지정어이다. 이 경우 [눈이 멀다]나 [귀가 먹다], [손이 크다] 등에서 명사 눈, 귀, 손은 서술어 [멀다], [먹다], [크다]의 논항이 아니라 각각의 서술어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술어를 이루는 요소이다. 따라서 눈, 귀, 손 등의 명사는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이루기 때문에 이들 명사와 함께 쓰이는 {가/이}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정어 표지의 생략이 가능하며, 이러한 명사구는 논항으로서 자격을 갖지 못한다.

지정어 표지의 생략과는 달리 지정어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선행하는 명사와 지정어가 인영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18b)에서 산은

[높다]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높이가 역시 [높다]라는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산과 높이가 는 [높다]라는 자질을 공유하게 되고 따라서 두 표현이 갖는 의미는 잉여적이다. 그러므로 잉여적 표현은 생략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18b)의 제 2명사구 높이가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생략 가능한 제 2명사구는 논항으로써 자격을 갖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지정어가 생략되는 경우는 주어와 동일한 자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잉여적 의미를 나타내고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렇듯 지정어 표지의 생략과 지정의 생략의 예는 다음과 같다.

- (19) a. 철수가 귀가 먹다. → 철수가 귀 먹다
 b. 철수가 손이 크다 → 철수가 손 크다
 c. 나무가 꽃이 피다. → 나무가 꽃 피다
 (20) a. 산이 높이가 높다 → 산이 높다
 b. 자동차가 속도라 빠르다 → 자동차가 빠르다
 c. 철수가 키가 크다 → 철수가 크다

(19)와 (20)의 제 2명사구는 모두 지정어의 범주의 표현이다. 그러나 (19)에서는 지정어 표지는 생략할 수 있지만, 지정어 전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 그런데 반해서 (20)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정어 표지를 포함한 명사구를 생략할 수 있다.

4. 지정어로서 제 2명사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국어의 제 2명사구는 동사구의 지정어임을 보았다. 이들 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앞에서 제기한 중주어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술적 단순성과 문제점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

첫째, 1항 술어와 함께 쓰이는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문은 두개의 논항을 취하는 1항 술어 구문이 아니라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핵문임을 알 수 있다. (16b)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제 2명사구는 논항표현이 아니라 VP의 지정어로서, 서술어에 대한 부가적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부가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어 중주어 구조는 논리 구조에 부합하는 적격형 구조임을 보일 수 있다.

둘째, (2b)의 수형도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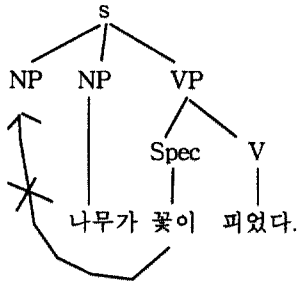
내포문이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16b)와 같은 핵문구조로 기술할 수 있다. 언어 직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철수가 코가 크다**와 같은 문장을 복문구조로 분석한 것은 합당한 분석방법이 될 수 없으며, 이른바 중주어 구문을 복문이라고 한다면 동일한 의미를 갖는 구문의 대한 분석이 곤란할 것이다.

- (21) a. 산이 높이가 높다.
 b. 산이 높다.

(21a)는 이른바 중주어 구문이며 따라서 복문구조로 분석한다면 동일한 의미를 갖는 (21b)는 단문으로 간주하는 데는 명시적 논거를 제시할 수 없다.

셋째, 대소 주어설 등이나 포유문설 등에서 제시한 중주어 구문은 국어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뒤섞기 규칙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2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이를 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 (22) a. 나무가 꽃이 피었다 ⇨ 꽃이 나무가 피었다
 b.



(22)에서 보는 것처럼 [꽃이]spec은 최대투사 범주인 VP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이]spec가 s로 이동함으로써 최대투사의 제약을 어기게 되고, 따라서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된다. 따라서 이른바 중주어의 제 2명사구는 주어라 아니라 지정어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중주어 구문 가운데 제 2명사구의 생략은 물론이고, 제 2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가/이}의 생략 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 (21) 산이 (높이가) 높다.
 (6) a. 철수가 귀(가) 먹었다
 b. 철수가 눈(이) 떨었다.
 c. 나무가 꽃(이) 피었다.

(21)에서는 제 2명사구 높이가를 생략하여도 문법적이다. 그러나 만일에 제 2명사구 높이가가 주어라고 한다면 이는 논항표현임으로 생략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략이 가능한 것은 높이가는 지정어기 때문이며, 지정어는 보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6)의 {가/이}의 생략이 가능한 것은 이들 {가/이}는 격표지가 아니라 지정어이기 때문이다. 즉 명사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새로운 서술어가 이루어질 때, 형태소 {가/이}들은 그 기능이 상실된다. 따라서 이들 {가/이}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일에 제 2명사구를 주어라 한다면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21)의 문법성이나 (6)의 문법성을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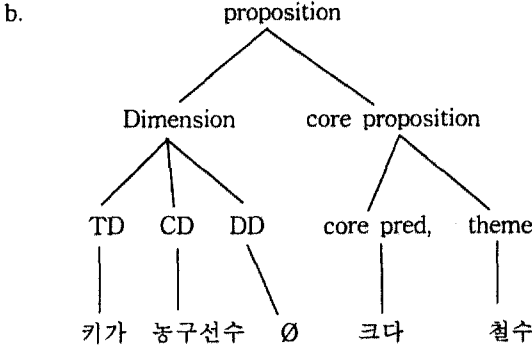
다섯째, Ikeya(1991,1996)등에서는 일본어와 영어의 형용사 구문의 해석 인자(vector)를 주제특질(Thematic Dimensions(TD)), 비교특질(Comparisn Dimensions(CD)), 그리고 정도특질(Degree Dimension(DD))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질을 나타내는 요소는 일본어 'ga'(국어의 {가/이}에 해당)와 함께 쓰이는 요소라는 주장하고 있다.

- (23) a. 철수는 아프다.
 b. 철수는 머리가 아프다
 (24) a. 철수는 키가 크다
 b. 철수는 농구선수로는 키가 크다.

Ikeya(1991)에 따르면 (23b)의 일본어의 머리가와 같은 명사구는 철수가 어디가 아픈가를 말해주는 요소일뿐 주어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23a, b)의 철수는은 주어이지만, (23b)의 머리는 주어가 아니라 TD라는 것이다. 또한 (24a)의 키가 역시 주어가 아니라 TD이며, 농구선수로서는은 CD라는 것이다.²⁾ 즉 국어에서는 키가는 소주어이거나 핵문의 주어로 간주하고 있는데 반해서 Ikeya(1991)에서는 TD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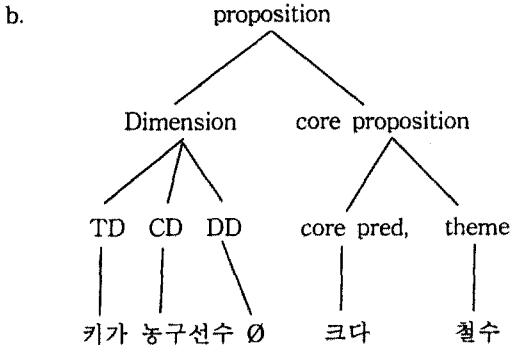
²⁾ 학자에 따라서는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와 같은 일본어의 구조를 2중주어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25) a. 철수는 농구선수로서 키가 크다



Ikeya의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인다면 주제문을 포함한 이른바 중주어의 구문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즉 (25a)와 같은 주제 문은 물론이고, (26a)와 같은 이른바 중주어 구문 역시 TD, CD, DD 등의 특질과 핵명제로 이루어진 구조로 분석될 것이다.

(26) a. 철수가 농구선수로서 키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국어의 포유문설이나 대소주어설을 결합한 것과 유사한 결과로서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제 2명사구를 주어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특질(Dimension)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핵명제를 포함하고 있는 상위 명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복문구조로 분석한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25a)과 같은 주제문은 물론이고 (26a)와 같은 이른바 중

주어 문장에서도 제 2명사구는 Dimension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키가와 같은 제 2명사구를 동사구의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보다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다. 즉 (16b)에서 보는 것처럼 이른바 중주어 구문을 하나의 단문 구조로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논항만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³⁾

여섯째, 시정곤(1995)에서는 명사구는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역은 동사가 명사구에 배당한다는 전제 하에, 명사구에는 다만 동사가 배정하는 의미역을 받을 빈자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 (27) a. 철수가 학교에 간다.(철수() <= A)
 b. 영화는 철수를 사랑한다 (철수(<=T)
 c. 영자는 철수에게 책을 주었다. 철수(<=G

예컨대 (27a)에서 철수는 고정된 의미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의미역을 배당받을 수 있는 빈자리 ()를 갖고 있는 있으며, 그 빈자리에 채워지는 의미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의미역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시정곤(1995)의 이러한 주장을 따르면 격표체가 발생하는 문장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은 대단히 자의적이며, 따라서 격표지와 의미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게 된다.

- (28) a. 철수는 동화책을 읽고 싶다.(동화책() <= T)
 b. 철수는 동화책을 읽고 싶다. (동화책() <= T)
 c. 철수는 동화책을 두 시간을 읽었다.(동화책() <= ?)

(28a)와 (28b)의 두 문장은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현이다. 다만 (28a)에서는 동화책과 형태소 {이}와 함께 쓰이는 경우이고, (28b)는 {을}과 함께 쓰이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를 격표지로 간주한다면 격표지 {이}에도 T가 부여할 수 있고, 격표지 {을}에도 T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는 격표지와는 무관하게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단히 자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서로 다른 격표지에 동일한 의미역을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

3) (i) 구두가 바닥이 구멍이 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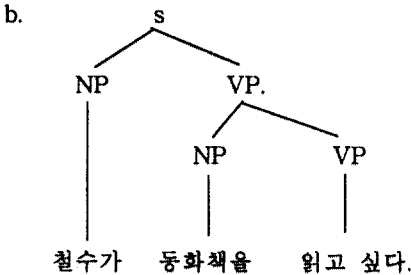
(i)와 같이 이른바 다중주어 역시 주어 구두가를 제외한 그 외의 명사구는 모두 동사구의 지정어로 간주할 수 있다.

서 주격표지 {가/이}와 목적격 표지 {을/를}이 동일한 의미역을 갖는다는 것은 격표지와 의미사이의 관계를 명시하지 못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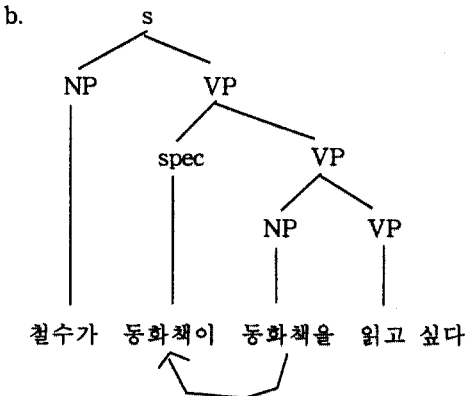
나아가서 (28c)의 동화책을의 {을}과 두 시간들의 {을}에는 서로 다른 의미역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소에 서로 다른 의미역을 부여하는 것 또한 자의적이다.

그러나 제 2명사구를 중격구조 대신에 동사구의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격표지의 문제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29) a. 철수가 동화책을 읽고 싶다.



(30) a. 철수가 동화책이 읽고 싶다.



(29)에서 보는 것처럼 목적격 표지 {을/를}이 나타나는 경우는 동사 읽고 싶다가 명사 동화책에 격과 의미역을 부여한 경우이다. 그러나 (30)에서는 동화책이는 서술어 읽고 싶다의 목적어가 아니라 지정어다. 바꾸어 말하면

(29b)에서 동화책은 읽고 싶다로부터 의미역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주제역을 나타낸다. 그러나 (30b)에서는 동사로부터 주제역을 부여받은 동화책은 격교체(4)에 의하여 동화책이로 실현된다. 바꾸어 말하면 (30)은 자의적으로 격표지 {가/이}에 의미역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격교체만 이루어졌을 뿐 의미역은 변하지 않고 원래 부여받은 의미역을 유지하게 된다.

이렇듯 격교체가 이루어진 명사구들을 주어나 목적어로 간주한다면, 격표지와 격의미 사이에 혼돈이 야기된다. 그러나 이들 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명사구에 격교체 현상이 적용되더라도 원래 부여받은 의미역에는 변화가 없음을 보게된다. 그러므로 책울의 {울}은 격표지이고 책이의 {이}는 지정어표지로 간주함으로써, 이를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종래의 중주어나 중목적어로 간주하였던 명사구를 동사구의 지정어로 간주해야 할 또 다른 근거는 내면격과 외면격의 표지에서서도 볼 수 있다.

(31) 철수가 사랑하는 영화가 왔다.

(31)은 철수가 영화를 사랑하다와 영화가 왔다라는 두 개의 문장이 관계절에 의하여 결합된 경우이다. 따라서 영화가는 사랑하다의 목적어임으로 목적격 표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외면격에서는 주격으로 표시되었다. 이는 영화가의 내면격은 목적격이지만, 외면격은 주격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영화가는 목적격과 주격의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이지만, 표면에 나타나는 격과 내면의 격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이 경우 영화물은 동사 사랑하다로부터 목적격을 부여 받았으나, 격교체에 의하여 영화가로 실현된 것이다.⁴⁾

일곱째, 조성은(2001)에 의하면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문의 대소 주어 사이에는 합의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고 있다. 즉 중주어 구문 가운데 소유관계를 인허(license)하는 동사에 있어서는 이들 동사는 사건과 관련된 명사구 사이에 합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4) 격교체가 나타나는 이유는 복합동사의 특성에 기인한다. 예컨대 (30)의 읽고 싶다에서 타동사 읽다가 명사구 동화책에 목적격을 부여하고 다음에 자동사 싶다에 의하여 목적격이 주격으로 교체된 것이며, 이는 상승(raising)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5) 이 경우 역시 외면격 영화가의 {가}는 자동사 왔다에 의하여 목적격에서 주격으로 상승된 경우로 간주할 수 있다.

- (32) a.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b. 머리가 아프다 ≡ 철수가 아프다
 (33) a. 개가 다리가 부러졌다⁶⁾.
 b. 다리가 부러졌다 ≠ 개가 부러졌다

(32a)의 경우 철수의 머리가 아픈 경우는 철수가 아픈 경우이다. 즉 (32a)에서 보는 것처럼 철수와 머리 사이에는 대소주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이고, 머리는 철수의 소유관계 내지 부분-전체 관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32b)에서 보는 것처럼 함의 관계(여기서는 ≡로 표시하였음)가 성립한다.⁷⁾ 그러나 (33a)와 같이 대소주어 사이에 소유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33b)처럼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조성은(2001)의 주장에 따르면 (32)에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만, (33)에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함의 관계의 성립 여부는 지정어 표지의 생략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34) a. 다리가 아프다
 b. 다리가 부러지다

(34)의 두 표현은 모두 지정어와 서술어가 결합된 서술어이다. 그러나 지정어와 서술어 사이에는 친밀성이 다를 수 있다. 이러한 지정어 표지의 생략의 가능성 여부는 예컨대 다리와 아픈 사이에는 친밀성이 있으나, 다리와 부러진 것 사이에는 그 빈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친밀성이 없다. 따라서 (34a)에서는 지정어표지 {가}의 생략이 가능하지만, (34b)에서는 지정어표지 {가}의 생략이 부자연스러운 경우이다.

이렇듯 지정어와 서술어 사이의 친밀성에 의하여 다리가 부러지다에서 지정어 표지 {가/이}은 생략될 수 없으나, 머리가 아프다에서는 지정어 표지 {가/이}가 생략될 수 있다. 즉 서술어 다리가 부러지다는 개를 논항으로

6) 강범모 교수의 지적으로써, 개의 다리가 부러진 것이 개가 부러진 것을 함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7) 주어뿐만 아니라 이중 목적어 사이에도 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함의 관계로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i) 철수가 존을 다리를 찾다 ≡ 존을 찾다.

(ii) 철수가 존을 얼굴을 때렸다 ≡ 존을 때렸다

취할 수 없지만, 서술어 머리 아프다는 첩수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32b)에서는 함의관계가 성립하지만, (33b)에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소 주어 사이의 함의 관계는 논항과 지정어 사이의 관계로 기술한다면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도 아픈 것은 (첩수, 영희, 등등)이고, 부러진 것에는 (나무가지, 다리, 등)일 수 있으나 (개, 첩수, 영희, 등) 일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아픈 것이나, 머리 아픈 것은 첩수, 영희 등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다. 그러나 부러진 것은 나무 가지나 다리 등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은 나무 가지등의 것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이 아니다. 즉 다리 부러지다는 하나의 서술을 이루지 못하지만, 머리 아프다는 하나의 서술을 이룰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이른바 중격구조 가운데 제 2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가/이}는 격표지가 아니라 지정어임을 밝혔다. 나아가서 이들 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함으로써 보다 많은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의미상으로도 이들 지정어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표현과의 미 사이의 관계는 더욱 명료하게 들어날 것이다.

5. 지정어의 논리구조

Davidson(1967)에 의하면 다음에서 보인 것처럼 부사어는 기본 명제에 연결되는 명제의 일부로 표시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행위문 표시에서 사건지시를 도입하고 있다.

- (35)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BUTTER(Jones, the toast) & p & q
 p expresses 'slowly'
 q expresses 'with a knife'
- (36)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exists e$ (BUTTER(Jones, the toast, e) & SLOWLY(E) & WITH(e, a knife))

(35)에서 두 명제 p와 q가 부사어와 같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35b)처럼 논항 외에도 사건은 행위동사의 논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35b)에서 사건 변항 e는 사건에만 적용되는 제한된 변항이다.⁸⁾

이러한 Davidson의 사건지시는 상태 술어에서는 상태지시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즉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변항 s를 도입할 수 있다.

- (37) a.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b. $\exists s$ (아프다(철수, s) & 머리(s))

(37a)에서 첫 번째 피접속어 아프다(철수, s)는 서술어와 논항(여기서는 철수)와 또 다른 논항으로써 상태(s)를 포함하고 있는 핵명제이다. 그리고 지정어인 머리는 아픈 상태를 논항으로 취하는 표현 즉 아픈 상태가 머리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정어 표지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어의 명사와 서술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서술어를 형성하는 경우가 아님으로 (36)과 같은 논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

- (38) a. 개가 다리가 부러졌다.
b. $\exists e$ ((부러지다(다리, e))(개, e))

(38a)에서 첫 번째 피접속어 부러지다(다리, e)는 서술어와 지정어인 다리와 또 다른 논항으로서 사건지시 e를 포함하고 있는 서술어이다. 말하자면 부러지다가 주어를 논항으로 취할 수 없는 경우임으로 부러지다의 지정어와 결합된 경우에만 주어를 논항으로 취할 수 있다. 즉 ((부러지다(다리, e))라는 서술어의 논항은 개이다.

이러한 논리적 표현에 의하여 (37)에서 함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과 (38)에서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 (39) a. 철수가 머리가 아프다
b. 머리가 아프다 \models 철수가 아프다
c. $\exists s$ (아프다(철수, s) & 머리(s)) \rightarrow $\exists s$ (아프다(철수, s))
(40) a. 개가 다리가 부러졌다.
b. 다리가 부러졌다 $\not\models$ 개가 부러졌다
c. $\exists s$ (((다리, s)부러지다))(개, s) $\not\leftrightarrow$ $\exists s$ (부러지다(개, s))

8) 사건변항 e는 마치 변항 t는 시간에만 적용되고, 변항 w는 세계에만 적용되는 것과 같다.

d. $\exists s[(\text{부러지다}(\text{다리}, s))](\text{개}, s) \leftrightarrow \exists s(\text{부러지다}(\text{개}, s))$

즉 (39c)에서 보는 것처럼 $(p \ \& \ q) \rightarrow p$ 가 성립하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면 그것은 곧 철수가 아픈 경우이지만, 다리가 부러진 것이 개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40c)의 논리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6. 결론

종래의 국어의 중격구조 특히 중주어 구조에 관한 논의는 하나의 핵문에 두 개의 주어를 인정함으로써 1항 술어가 2개의 논항을 갖는다는 문제점을 야기하였고, 또한 하나의 핵문이 매립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른바 중주어 가운데 제 2명사구를 동사구의 지정어로 간주함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첫째, 1항 술어와 함께 쓰이는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문은 두개의 논항을 취하는 1항 술어 구문이 아니라 하나의 논항을 취하는 핵문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조에는 중문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라, (6)와 같은 핵문구조로 기술할 수 있다.

셋째, 국어 중주어 구조에서는 제 1주어와 제 2주어 사이에 뒤섞기 규칙 적용되지 않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 2명사구를 지정어로 간주한다면, 이를 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넷째, 중주어 구문 가운데 제 2명사구의 생략은 물론이고, 제 2명사구의 범주 표시자 생략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섯째, Ikeya(1996), 1991)등에서는 일본의 형용사 구문의 해석 인자(vector)의 특질을 지정어로 간주함으로써 핵문구조에 합당한 하나의 논항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여섯째, 시정근(1995)에서 제시한 의미역 부여의 자의적 성격을 제 2명사구를 중주어 대신에 지정어로 간주함으로써 격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일곱째, 조성은(2001)에 의하면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문의 대소 주어 사이에는 합의 관계 성립여부를 보다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Davidson(1967)에서 제시한 사건지시를 상태술어에 있어서는 상태지시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제 2명사구는 상태를 논항으로 취하는 합

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른바 국어 중주어 구조의 논리식은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음을 보였다.

(41) 철수가 코가 크다 = $\exists s$ (크다(철수, s) & 코(s))

참고문헌

- 김영희. (1978). 겹주어론. 한글 162
- 김인현. (1996). 韓・日兩語における 助詞の 對照研究. *외국문화연구*, 조선대학교.
- 박병수. (1983). 문장술어 의미론: 중주어 구문의 의미고찰. 말 8
- 성광수. (1974). 국어 주어 및 목적어 중출 현상 : 격문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문법연구* 1
- 시정근. (1995). 어휘결합과 의미해석. 언어 20-1호 한국언어학회.
- 양인석. (1972). 한국어의 접속화. *어학연구* 8-2
- 윤만근(1996). *생성통사론*. 서울. 한국문화사.
- 임홍빈 (1974). 주격 중출론을 찾아서. *문법연구* 1.
- 임홍빈. (1972). 국어의 주제화 연구. *국어연구* 28
- 조성은 (2001). Three Forms of Case Agreement in Korean.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표*.
- 조준호. (2001). '싶다'구조의 제약기반적 분석. *언어학* 9-2
- 최중주, 이남근(2000). '싶다' 구문의 격과 부가어: HPSG의 확대 논항구조적 분석. *언어학*
- 최현배. (1937).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Bartsch, R. (1986). Context-Dependent Interpretation of Lexical Items. in J. Groenendijk, D.d., John. and M. Stokhof. eds. (1-26).
- Bartsch, R. (1987). Foundations of Pragmatics and Lexical Semantics. *Journal of Semantics*. 5. (293-320)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vidson, D. (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 in Rescher, N.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 of Pittsburgh Press). (81-120)
- Fillmore., C. (1968). *The case for case in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Ikey, Akira (1996). Though Construction of Japanese and English in HPSG Framework. in *Discourse and Meaning* ed. Barbara H. Partee and Petr Sgall.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Ikeya, Akira (1991). A contextual Approach to Japanese Adjectives. *The sixth Japanese-Korean Join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 Kim., Soowon and Joan Maling. (1997). Case Assignment in the siphta construction and Its implication for case on Adverbials in Roo King(ed) *Description and Explanation in Korean Linguistics* pp.141-179. New York. Cornel Univ. Press.

이영현

501-759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375
조선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전화: (062)230-6933
e-mail: younglee@chosun.ac.kr

Received: 20 Nov 2002

Accepted: 30 Jan 2003